

# 큰 빛은 예교회 가정에배지

2024. 6. 19. WED



#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송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창세기 3장 7~12절

다 같이

- 7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 8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 9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 10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 11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 12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말씀 나눔** ----- 타락한 인간의 세 가지 모습 ----- **인도자**

인류가 타락 이후 일그러진 모습들이 전쟁과 살인과 기타의 악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날마다, 시대마다 세계를 오염시키는 범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죄를 범한 인간이요,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의 길로 나간 아담과 하와의 독소로 인해 인간은 늘 타락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반면교사 삼는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 항상 헛된 노력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시력이 더 좋게 회복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순수하고 티 없이 밝은 마음이 없어지고 대신에 탐욕스럽고 싸우며 순수하지 않은 이기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자신들의 벌거벗은 나체를 보고 기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몸과 마음의 수치심을 느끼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햇빛이 들면 시들어 버릴 풀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본문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인간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뼈뿔어진 시각을 만족시켜보려는 헛된 노력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헛된 노력보다 뼈뿔어진 시각을 다시 바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헛된 노력보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각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항상 하나님의 낫을 피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린아이나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녀가 자신의 나이에서 해결하기 벅찬 문제를 풀려고 노력할 때, 그들의 부모들은 함께 고민하며 그 문제들을 풀어주고자 합니다. 이때 자녀들이 자기 노력만을 고집하며 부모의 얼굴을 피하고 관계를 기피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큰 미궁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본문 8절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마찬가지로 죄를 범하여 타락한 인간이지만 그들이 피할 곳은 동산의 나무 사이가 아니라 동산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너무도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에 두려움을 느껴 당장 피하려고만 합니다. 피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고 더욱 더 미궁으로 빠지게 되고,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모습 속에서 숨기고 싶은, 또는 감추고 싶은 일이 있거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수준으로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항상 핑계합니다.**

현시대를 보면 많은 범죄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살인과 인신매매, 전쟁과 약탈, 강도와 폭력 등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파멸의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런 반인류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정 앞에 선 그들은 도리어 세상을 핑계하고 남을 탓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푸틴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등은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여라도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현재 이러한 모습은 아담이 하와 때문이라고 핑계한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11~12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처럼 이미 하나님 앞에서 떳떳함을 상실한 죄인은 항상 핑계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세상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가족과 지인들을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범죄치 말고 주님께 회개합시다. 그래서 용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떳떳한 모습을 되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헛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보다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 남을 핑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자신을 마주하며 회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눌            -----            다    같    이**

- 1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내가 해결하려 했던 문제가 있나요?
- 2    항상 핑계하면서 부정적으로 행동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나의 모습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나눠 주세요.

## 중 보 기도

다 같 이

- 1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 2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 3 큰빛은혜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데 필요한 영권, 인권, 물권이 넘쳐나도록
- 4 큰빛은혜교회가 예수님을 따라 나눠 주고, 꾸어 주고, 베풀어 주는 교회가 되도록
- 5 콜럼버스 파크의 홈리스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 6 베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 마무리 기도

다 같 이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죄 가운데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순간 나의 헛된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복과 평안을 누리는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주 기도 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